

In Brief

2016년 1월 19일

IASB가 IFRS 16 '리스'를 발표하였습니다.

Issue

2016년 1월 13일 IASB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 온 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기존 IAS 17을 대체하는 IFRS 16 '리스'를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기준서로 특히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 중대한 변화가 요구될 것입니다. 동 기준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 함께 적용된다면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Key provisions

IAS 17 적용시 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난내)와 운용리스(난외)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IFRS 16에서 리스이용자는 미래 리스 지급액을 반영하는 리스부채와 '사용권자산(right-of-use asset)'을 대부분의 리스에 대하여 인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IASB는 일부 단기 리스 및 저가 자산에 대한 리스에 한하여 선택적 면제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면제조항은 리스이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리스제공자는 기존의 회계처리와 거의 동일한 회계처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IASB는 리스의 정의 및 계약의 조합과 분리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하였기 때문에 리스제공자도 새로운 기준서에 영향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리스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회계기준으로 인해 리스제공자는 리스이용자와의 거래조건 협상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FRS 16에서는 특정 자산의 사용을 일정 기간 동안 통제할 권리를 대가와 교환하여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을 리스로 정의합니다.

Impact

IFRS 16은 다수의 리스이용자의 재무제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상태표

새로운 기준서는 재무상태표와 부채비율과 같은 관련 비율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산업에 따라 그리고 기존 IAS 17에서 운용리스로 분류되었던 리스의 개수에 따라 새로운 접근법은 재무상태표상 부채의 규모를 유의적으로 증가시키게 될 수 있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과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당기손익에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IAS 17에 따른 운용리스에 따른 회계처리 대비 비용의 배분 뿐 아니라 리스기간 중 각 기간에 인식되는 총 비용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용권자산에 대한 정액법의 감가상각과 리스부채에 대한 유효이자율법 적용은 리스 초반에 더 높은 비용을 인식하고 리스기간 후반에는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금흐름표

기존에 운용리스로 분류되었던 계약의 현금흐름이 더 이상 전액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으로 구분되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기준서의 영향이 현금흐름표에도 미칩니다.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만이 (기업이 이자지급을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에 포함하는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있다면) 영업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의 원금 부분에 대한 지급은 재무활동으로부터의 현금흐름에 포함됩니다. 단기 리스 또는 저가 자산에 대한 리스 및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조정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표시됩니다.

Transition

IFRS 16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적용됩니다. 조기적용은 IFRS 15 '고객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수익'과 함께 적용하는 경우에 허용됩니다. 새로운 기준서 도입에 따른 전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완전한 소급적용 대신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의 측정에 대한 완화된 방법을 포함하는 '간편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간편법'은 비교표시 재무제표의 재작성 또한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 기업은 최초 적용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재평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nsight

기업은 모든 리스계약을 식별하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측정하고 새로운 공시사항을 준비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